

대한항공

2019년 1분기 실적

인천-보스턴 신규취항 (4/12)

KOREAN AIR 

50 years 

Disclaimer

-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대한항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. 동 정보는 주식 거래 및 투자의사 결정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합니다.
- 예측정보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,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포함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요약손익계산서 (대한항공 별도 기준)

- **여객사업 호조로 영업수익 3조 498억원 달성 (+325억원, +1.1%, yoy)**
- **달러강세로 인한 외화환산손실로 당기순손실 발생**
- 외화환산손실 1,473억원 (통화 헷지효과 고려 시 1,071억원)

(단위:억원)

구 분	2018년 1분기	2019년 1분기	증 감		비 고
영업수익	30,173	30,498	+325	+1.1%	
여객	18,519	19,056	+537	+2.9%	수송량 +1.8%, Yield +1.1%
화물	6,976	6,446	△530	△7.6%	수송량 -9.4%, Yield +1.9%
연관사업	4,678	4,996	+318	+6.8%	항공우주 +12.7%, 타사정비수익 +38.7%
영업비용	28,405	29,016	+611	+2.2%	
연료비	7,293	7,247	△46	△0.6%	급유단가 -4.6%, 평균환율 +4.9%, 연료소모량 -1.5%
연료비 외	21,112	21,769	+657	+3.1%	
영업이익 [영업이익률]	1,768 [5.9%]	1,482 [4.9%]	△286 [△1.0%p]	△16.2%	
영업외손익	△1,435	△1,887	△452	△31.5%	
순이자비용	△1,011	△1,320	△309	△30.6%	
외화환산차손익	△149	△1,473	△1,324	△888.6%	2018년말 대비 원/달러 환율 +19.7원
파생상품평가	△329	611	+940		통화 헷지 +402억원, 유가 헷지 +209억원
법인세차감전순손익	333	△405	△738		
당기순손익	233	△342	△575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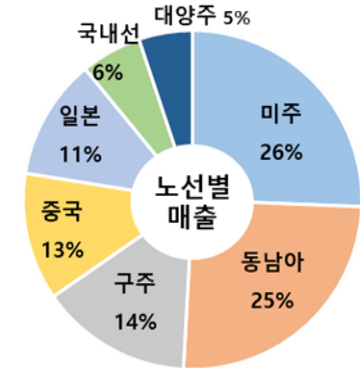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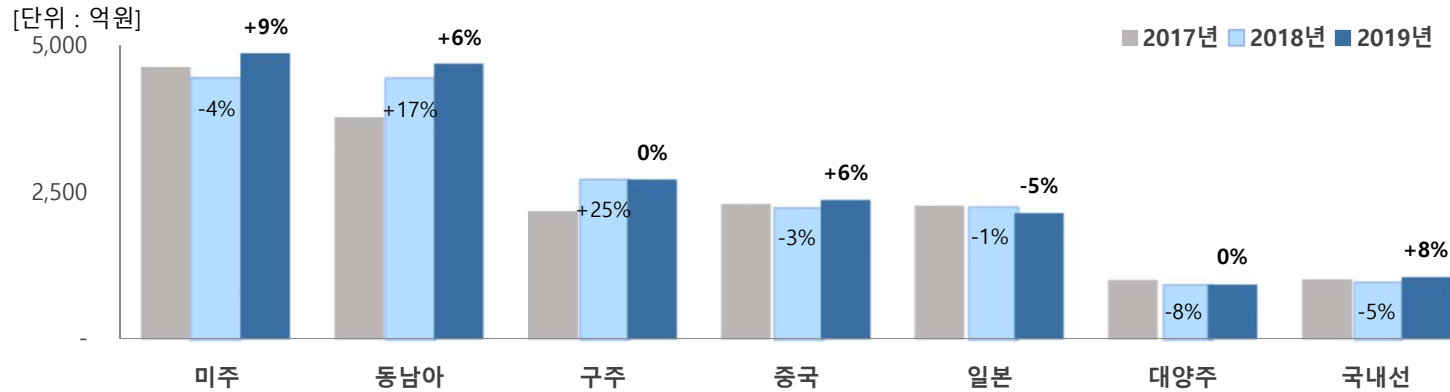
• 평가환율 : 2018년 말 1,118.1원/USD → 2019년 3월 말 1,137.8원/USD (+19.7원, +1.76%)

여객사업

○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: 수익 +2.9%, 수송 +1.0%, Yield +1.1% (yoy)

- Delta Joint Venture 효과로 미주, 동남아 노선이 여객사업 성장 견인
- 중국노선 수요 증가로 THAAD 배치 이전('17년 3월) 수준으로 수송 및 매출 회복

노선별 매출



구 분	2017년 1분기	2018년		2019년	
		1분기	전년비	1분기	전년비
공급 (백만km)	23,185	24,446	5.4%	24,570	+0.5%
수송 (백만km)	18,565	19,351	4.2%	19,702	+1.0%
L/F	80.1%	79.2%	-1.1%	80.2%	+1.3%
YIELD (원)	90.4	95.7	5.9%	96.7	+1.1%
여객 수익 (억원)	16,791	18,519	10.3%	19,056	+2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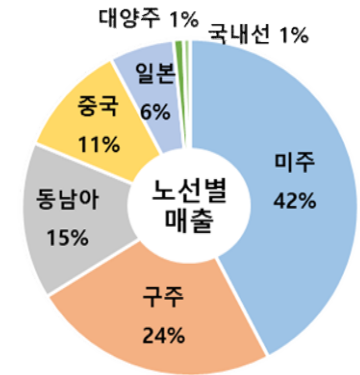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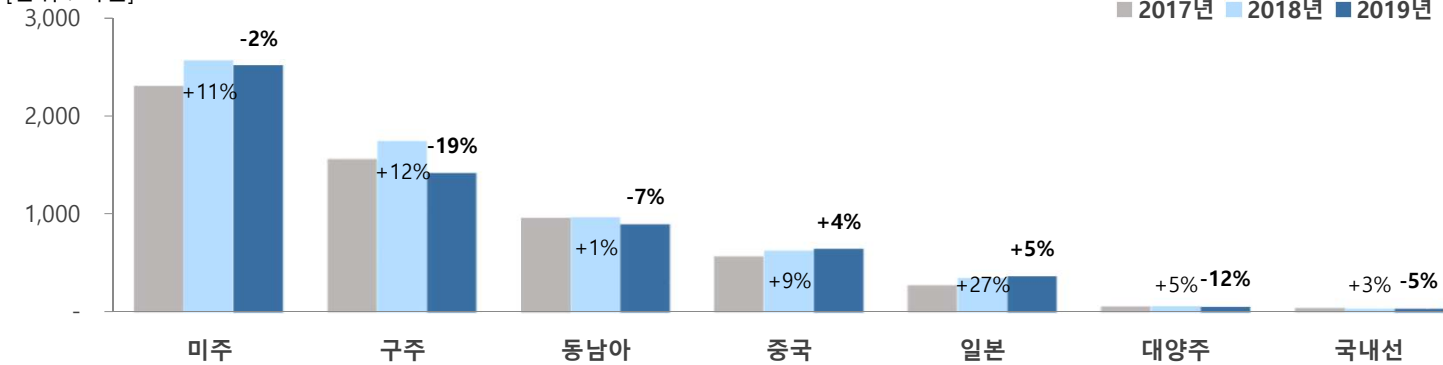
화물사업

○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Yield 상승 지속: Yield +1.9% (yoy)

-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·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수송량 감소
- 신선화물, 생동물 등 고단가 품목 확대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 지속 추진

노선별 매출

[단위 : 억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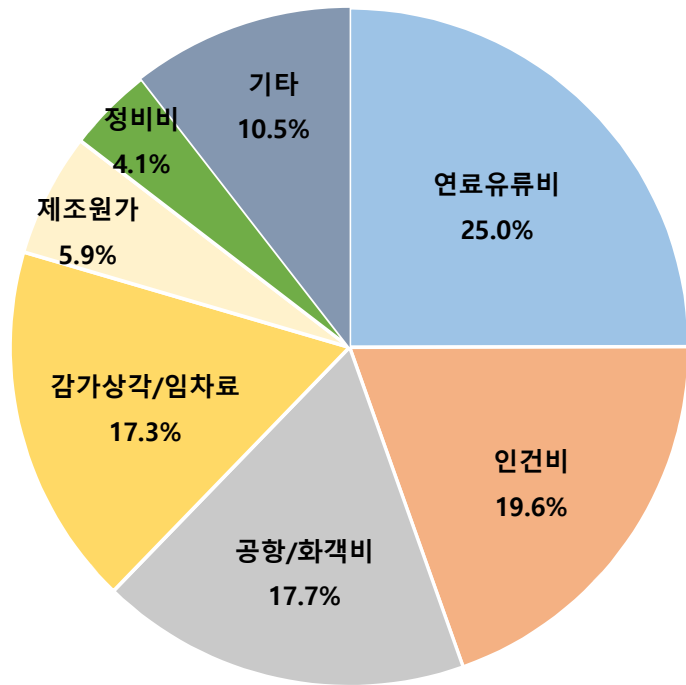


구 분	2017년 1분기	2018년		2019년	
		1분기	전년비	1분기	전년비
공급 (백만톤km)	2,584	2,620	1.4%	2,603	△0.7%
수송 (백만톤km)	2,020	2,009	-0.5%	1,821	△9.4%
L/F	78.2%	76.7%	-1.9%	70.0%	△8.8%
YIELD (원)	316.7	347.3	9.7%	354.0	+1.9%
화물 수익 (억원)	6,397	6,976	9.1%	6,446	△7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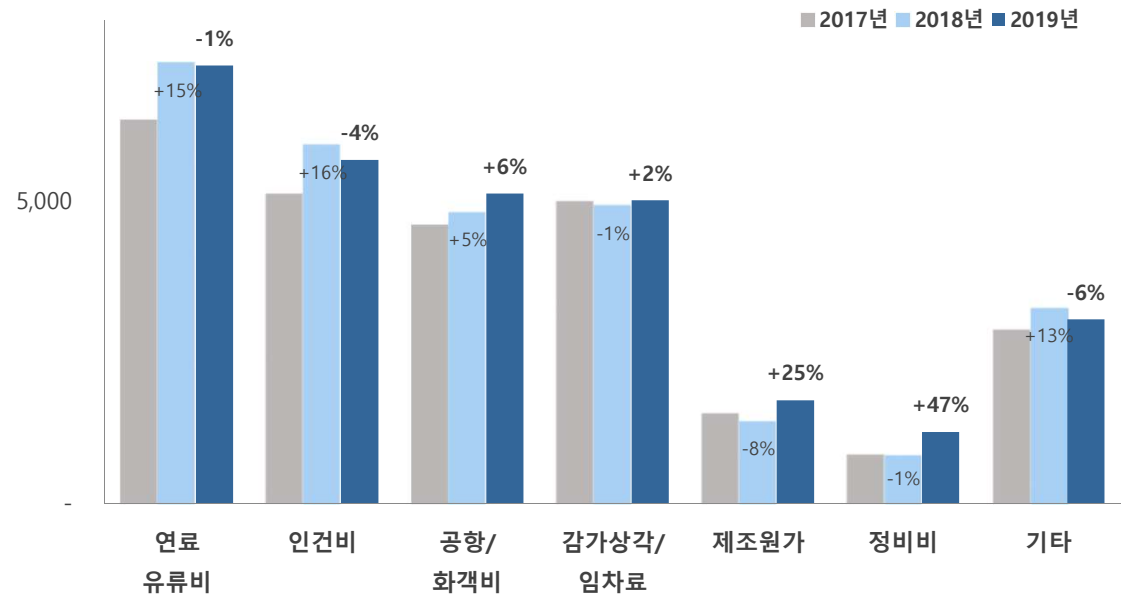
영업비용

○ 영업비용 2조 9,016억원: +611억원, +2.2% (yoy)

- 정비비: +378억원 (대형기 정비 주기 도래)
- 공항/화객비: +305억원 (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)



[단위 : 억원]



여객 사업 전망

❖ DELTA Joint Venture 효과 극대화

- Delta Joint Venture 활용하여 미주/동남아 노선의 고단가 상용 수요 유치 강화
- 보스턴 정기편 신규 취항 (4월) 으로 미 동부지역 수요 개발
- ※ Delta: 미니애폴리스 신규 취항 (4월)

❖ 비즈니스석 공급 확대

- 중·단거리 중 관광 노선의 Class 변경 (일등석 → 비즈니스석 전환, 6월)

❖ 신시장 지속 개척으로 성장 동력 확보

- 아사히카와 (일본, 6월~10월)
- 달랏 (베트남, 6월~2020년 3월)

화물 사업 전망

❖ 적극적인 영업 및 노선 운영

- 정기성 물량 확보 확대
델리 (인도, 5월) 주 3회 → 4회 증편, 마닐라 (필리핀, 5월) 주 2회 운항 재개
- 프로젝트성 대형 물량 유치
시안 (중국, 5월) 부정기편 신규 취항으로 반도체 설비 물량 수송

❖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품목 지속 개발

- 고단가 화물 수송 확대로 미주/남미 노선 수익성 개선 (콜롬비아 발 화훼류 등)
- 성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(신선식품, 의약품, 전자상거래)

❖ 차세대 화물 시스템 <i-Cargo> 도입 (4월)

- 온라인 판매 기능 및 화물 추적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 편의성 강화
-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(화주, 대리점, 세관 등)

요약재무상태표 (대한항공 별도 기준)

○ 리스회계기준 변경 및 환율상승으로 부채비율 상승 (+68%p)

- 리스회계기준 변경: 자산/부채 1.6조원 증가 (부채비율 +59%p)
- 환율상승 영향: 차입금 1,508억원 증가 (KRW/USD +19.7원)
- ☞ 회계기준 변경 및 환율 영향 제외 시, 순 차입금 2,527억원 감소

(단위:억원)

구 분	2018년 말	2019년 1분기	증 감		비 고
유동자산	35,702	36,593	+891	+2.5%	
현금성 자산	12,613	12,960	+347	+2.7%	단기금융상품 포함
운용리스 사용권자산		566	+566		리스회계기준 변경 영향 (항공기, 일반자산)
비유동 자산	208,031	222,627	+14,596	+7.0%	
항공기 관련 자산	150,276	149,804	-472	-0.3%	신규도입 +0.4조원, 감가상각 -0.5조원
운용리스 사용권자산		14,987	+14,987		리스회계기준 변경 영향 (항공기, 일반자산)
자산 총계	243,734	259,220	+15,487	+6.4%	
금융 부채 (차입금)	146,732	161,823	+15,091	+10.3%	환율 영향 +1,508억원
운용리스 사용권부채		15,763	+15,763		리스회계기준 변경 영향 (항공기, 일반자산)
기타 부채	66,782	67,767	+985	+1.5%	
선수금	35,384	36,364	+980	+2.8%	
부채 총계	213,514	229,590	+16,076	+7.5%	부채비율 707% → 775% (+68%p)
자본 총계	30,219	29,630	△589	△1.9%	

• 평가환율 : 2018년 말 1,118.1원/USD → 2019년 3월 말 1,137.8원/USD (+19.7원, +1.76%)

항공기 보유 현황

구 분	기 종	2018년	2019년 1분기	도입계획(월)
중대형기	A380	10	10	
	A330	29	29	
	B747-400	2	2	
	B747-8I	10	10	
	B777	42	42	(5)(6)
	B787-9	9	10	
소형기	B737-800/900	32	31	
	A220 (CS300)	9	10	
여객기 계		143	144	
화물기	B747F	4	4	
	B747-8F	7	7	
	B777F	12	12	
화물기 계		23	23	
총 계		166	167	2

- B737-MAX8: 항공기 안전 확보 시점까지 도입 연기

감사합니다